

신진 큐레이터의 꿈 실현

롯데갤러리 광주점 기획 공모

유명진 ‘보물찾기’ 1등 영예

참여작가 권윤지 등 5명 초대

큐레이터는 작품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해준다. 그러기 위해서 학문에 대한 깊이도 필요하지만 다채로운 경험도 요구된다. 하지만 전시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전시 기획을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 큐레이터의 꿈을 실현해 준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이 올해 처음 시도한 2023 롯데갤러리 광주점 신진 큐레이터 공모다.

이번 공모전에서 유명진씨(24)가 1등의 영광을 얻어 전시지원비 1,000만원을 받았다. 2등 수상자 최하얀씨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전달됐다. 지원금을 기반으로 유씨는 롯데갤러리에 ‘보물찾기 : 빼앗긴 호기심을 찾아서’를 기획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빼앗겨버린 원초적 감정인 ‘호기심’을 되찾기 위해 이를 유발하는 불확실성을 마주보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작품 배

치 또한 바깥에서는 내부 전시 작품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다. 전시명인 보물 찾기의 의미가 담겼다. 관람객이 전시장에 들어와 작가들의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유씨가 기획한 전시 참여작가는 권윤지·김은경·박성수·임송은·임수범 작가다.

롯데갤러리는 유씨의 전문가 멘토로 김영애 실장(롯데백화점 아트컨텐츠실), 이은하 대표(콜렉티브 오피스), 조상인 기자(서울경제), 김민경 학예사(광주시립미술관), 윤나연 큐레이터(롯데백화점 아트갤러리팀)를 초빙했다. 유씨는 전문가를 통해 전시 기획은 물론 홍보방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유씨는 지난 29일 전시 개막전에서 직접 작품을 소개했다.

임수범 작가의 ‘공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작가가 불확실한 미래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탐구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의 공허함’을 담은 박성수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지 원료가 되는 분쇄되고 젖어있는 백다를 나무화판에 쌓아 놓고 두들겨 패가며 면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뭉치고 작업을 해나간다”며 작업방식을 소개했다.

권윤지 작가의 ‘Phantasmagoria’에 대해



임수범 작가의 작품 ‘공터에서 벌어진 일’ 앞에서 2023 신진 큐레이터 공모전 1위 수상자인 유명진씨(오른쪽부터)와 권윤지·박성수·임송은·임수범 작가가 포즈를 취했다.

“아크릴판을 레이저 커팅·부착해 만든 권 작가의 작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던진다”며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더 이끌고 했다.

풍경 위에 물감을 자유롭게 흘러보낸 임송은 작가의 ‘Flowing mountain’ 시리즈와 김은경 작가 영상작품 ‘가시어’ 등에도 애정어린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시장에는 전시장 곳곳에 QR코드를 숨겨놓은 보물찾기 이벤트도 마련됐다. QR코드에는 관람객이 생각하는 보물을 공유할 수 있어, 떠올린 생각을 정리함과 동시에 집중하고 찾는 즐거움을 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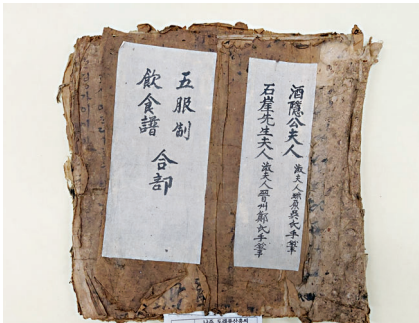
유씨는 “전시는 여러 사람의 참여와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체감한 시간이었다”며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포기했다라면 후회했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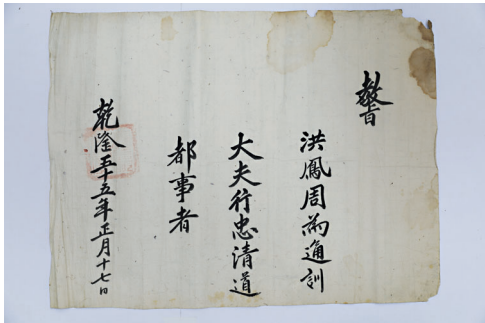
한편 유씨는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 미술이론전공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SPACE A 갤러리에서 ‘예술가의 고민, 흔적’을 기획한 바 있다. 전시는 6월 27일까지 열린다. /글·사진=이나라 기자



영광 정홍연 관련 ‘족보’



나주 풍산홍씨 ‘음식보’



나주 풍산홍씨 ‘1790년 교지’

‘영광 정홍연·나주 풍산홍씨 고문서’ 전남도 문화재 지정…“도민과 공유”

역사·사료적 가치 높아

전남도는 30일 “‘영광 정홍연 관련 고문서와 전적’, ‘나주 풍산홍씨 석애문중 고문서와 전적’을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광 정홍연 관련 고문서와 전적’은 죽장 정홍연과 후손 문중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자료로, 조선시대 동래정씨의 향촌 사회 정착과 활

동을 엿볼 수 있다.

1865년부터 근현대 시기까지 문중 재정 운영 실태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조선시대 제도사와 향촌 사회사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나주 풍산홍씨 석애문중 고문서와 전적’은 풍산홍씨 문중의 가계·역사·인물 관계와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료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200년간 형성됐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다.

특히 음식보는 18세기 중반 한글 조리서로 매우 희귀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높다.

도는 또 ‘고흥 송광암 목조 불·보살좌상’을 도보와 도 누리집에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30일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전남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2건의 고문서와 전적 문화재를 통해 조선시대 전남의 문중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가치가 높은 지역 문화재를 지속 발굴하고 시·군과 협조해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6월 국제설계 공모

1,181억 투입 지상 3층 규모

광주시가 신축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를 국제 공모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국제 건축설계 공모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당선 업체와 계약을 거쳐 내년 1월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전시관 건립 자문위원

회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를 위해 국내외 건축가가 참여하는 설계 공모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사업부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공모 지침을 마련하고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 우수한 작품이 접수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사업비 1,181억원을 투입해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3,500㎡, 지상 3층 규모 전시관을 신축할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서재필 박사 추모 송재문화제 내달 8일 열린다

송재 서재필 박사 탄생 159주년 기념 및 서거 72주기 추모 제10회 송재문화제가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서재필기념공원(보성군 문덕면 용임길8)에서 열린다.

문화제에는 보성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과 달성 서씨 종친, 성주 이씨 종친, 재광보성향우회 원, 광주·보성 향교유림대표, 군민, 학생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례와 약

사 및 경과보고, 정상희 명창, 유세운 명인의 추모 헌정 공연, 한곡 다례, 내빈 헌화 분향, 추모기도, 독경, 헌시 낭독이 이어진다.

송재 서재필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백화가 만발한 봄날 보훈 문화 추모행사에 내외귀빈 군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선생의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흠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올상

전남농협 협의회 추진운동 발동

1천만엔! 02

문화·체육 "분류·이코노미의 구체화"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